

2025년 미국의 농식품 무역 전망

곽혜선*

1. 개요

‘미국의 농업 무역 전망 2025(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 February 2025)’는 2025년 회계연도의 세계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미국의 수출과 수입 전망을 제공하는 보고서이다. 미국의 연방 정부 회계연도는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9월까지로, 해당 보고서는 2024년 10월~2025년 9월의 전망을 제공하며 보고서의 2024년은 2023년 10월~2024년 9월, 2025년은 2024년 10월~2025년 9월을 의미하는 회계연도의 개념이다.

해당 보고서의 ‘농산물(agricultural products)’은 USDA가 WTO의 정의에 따라 2020년 12월 변경한 기준을 따르며, USDA의 변경된 ‘농산물’에는 에탄올, 증류주 및 제조 담배 제품이 포함된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2025년 2월 11일 세계 농산물 공급 및 수요 추정치(The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 발표 당시 시행 중인 정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세계 농산물 공급 및 수요 추정치(WASDE)는 세계농업전망위원회(The World Agricultural Outlook Board, WAOB)¹⁾에서 작성하여 매월 발표하며, 미국과 세계 밀, 쌀, 조곡, 유지종자, 면화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연간 예측을 제공한다.²⁾

본 고에서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 미국의 농식품 수출 전망, 미국의 농식품 수입 전망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hyesunk@krei.re.kr).

본고는 USDA의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 February 2025」 보고서를 번역·정리한 것임.

1) WAOB는 주요 USDA 기관의 분석가를 포함하는 산하기관간 상품 추정 위원회(ICEC)의 의장으로, USDA 및 기타 국내 및 해외 소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2) USDA(<https://www.usda.gov/about-usda/general-information/staff-offices/office-chief-economist/commodity-markets/wasde-report>). 검색일: 2025. 3. 7.

2. 2025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

2025년 전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은 3.3%로 전망된다. 2024년에는 긴축 통화정책, 소비 감소, 공급망 정상화로 인해 물가 상승이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수의 국가가 금리를 인하했다. 2025년에 실질임금 성장률도 상승하여 소비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는 전 세계 실질 GDP 성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달러의 가치는 2024년 평균적으로 세계의 거래 상대국 통화 대비 3.9% 상승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둔화되었다. 2025년은 미국의 낮은 금리로 인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자본이 감소하여 달러화의 가치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승률은 2.2%로 전기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 GDP 성장률 전망은 2025년 2.7%이며, 2024년 11월 기준 전망보다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완화된 통화정책, 소비 증가, 낮은 실업률, 기업 투자 증가로 인한 것이다. 2024년 9월 이후 미국 연방기금금리는 5.3%에서 4.3%로 1.0%p 인하되었으며, 실업률은 2025년 1월 기준 4.0%로 2024년 3.7%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인플레이션은 2025년 1월 3.0%로 전년 동기(3.1%)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4년 9월(2.4%)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북미 지역의 경제 성장 전망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GDP 성장률은 물가 고착화, 긴축 재정정책, 일자리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2025년 1.4%로 둔화될 전망이다. 캐나다의 GDP 성장률은 2025년 2.0%로 2024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금리 인하와 이에 따른 소비 증가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신흥시장 전망은 중국, 인도, 브라질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24년 4.8%에서 2025년 4.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인프라 투자 감소, 소비 둔화, 소비자 신뢰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의 GDP 성장률은 2025년 6.5%로 여전히 강한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브라질의 GDP 성장률은 긴축 통화정책과 경직된 노동시장의 영향으로 2024년 3.7%에서 2025년 2.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 GDP의 평균 성장률은 세계의 주요 경제권 중에서 가장 낮은 1.2%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Euro-zone)의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은 1.0%로,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GDP가 낮은 변화율이지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2025년 GDP 성장은 일본, 호주 및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 2.7%로 전년 대비 0.6%p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의 경제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제조 산업의 성장,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영향으로 보인다.

남미의 GDP는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2025년에 2.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 긴축 통화 및 재정정책은 2024년 4월 292.2%였던 인플레이션율을 2024년 12월 117.8%로 완화시켰으나, 이러한 긴축 정책은 2024년 아르헨티나의 GDP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5년 아르헨티나의 GDP 성장률은 5.0%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남미 지역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 노동 시장의 미미한 성장은 GDP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GDP는 2025년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해당 지역의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응하여 완화된 통화정책을 사용함에 따라 2025년에 GDP가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미국의 농식품 수출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변수(2024~2025년)

| 지역 | 환율 | | 실질 GDP 성장률 | | 전 세계 대비 비율 | | 미국 농식품 수출 비율 |
|-------------|------------|------------|------------|------------|-------------|-------------|--------------|
| | 2024 | 2025 | 2024 | 2025 | GDP | 인구 | |
| 전 세계 | 3.9 | 2.2 | 3.2 | 3.3 | - | - | - |
| 북미 | 2.3 | 4.6 | 2.6 | 2.5 | 27.6 | 7.6 | 30.1 |
| 미국 | - | - | 2.8 | 2.7 | 23.6 | 4.3 | - |
| 캐나다 | 1.4 | 1.9 | 1.3 | 2.0 | 1.9 | 0.5 | 15.1 |
| 멕시코 | 3.1 | 7.2 | 1.8 | 1.4 | 1.4 | 1.7 | 15.1 |
| 신흥시장 | 1.9 | 0.6 | 5.0 | 4.6 | 26.9 | 43.4 | 21.5 |
| 브라질 | 7.9 | 8.2 | 3.7 | 2.2 | 2.1 | 2.8 | 0.4 |
| 러시아 | 6.5 | 2.4 | 3.8 | 1.4 | 1.6 | 1.8 | 0.1 |
| 인도 | 1.3 | 0.8 | 6.5 | 6.5 | 3.3 | 17.3 | 1.1 |
| 인도네시아 | 4.0 | 0.1 | 5.0 | 5.1 | 1.3 | 3.5 | 1.7 |
| 중국 | 1.6 | 0.5 | 4.8 | 4.6 | 18.6 | 18.0 | 18.2 |

| 지역 | 환율 | | 실질 GDP 성장률 | | 전 세계 대비 비율 | | 미국 농식품 수출 비율 |
|------------------------|-------------|-------------|------------|------------|-------------|-------------|-----------------|
| | 2024 | 2025 | 2024 | 2025 | GDP | 인구 | |
| 유럽 및 중아시아 | 3.3 | 1.5 | 1.0 | 1.2 | 24.2 | 10.8 | 7.1 |
| 유로존 | 0.0 | 1.4 | 0.8 | 1.0 | 14.4 | 4.4 | 6.2 |
| 우크라이나 | 10.7 | 6.4 | 3.0 | 2.5 | 0.1 | 0.6 | 0.0 |
| 터키 | 36.6 | 3.3 | 2.8 | 2.6 | 1.3 | 1.1 | 0.9 |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3.1 | 0.8 | 2.1 | 2.7 | 37.2 | 55.2 | 18.4 |
| 일본 | 7.7 | 0.4 | -0.2 | 1.1 | 5.1 | 1.6 | 7.5 |
| 한국 | 4.4 | 2.6 | 2.2 | 2.0 | 1.9 | 0.7 | 4.8 |
| 호주 | 0.7 | 1.6 | 1.2 | 2.1 | 1.8 | 0.3 | 0.8 |
| 동남아시아 | 1.7 | 0.0 | 4.8 | 5.0 | 1.7 | 4.1 | 5.3 |
| 남미 | 9.3 | 3.5 | 2.3 | 2.8 | 4.0 | 5.2 | 3.3 |
| 아르헨티나 | 208.7 | 60.2 | -2.8 | 5.0 | 0.7 | 0.6 | 0.1 |
| 기타 국가 | 5.2 | 1.8 | 2.3 | 2.7 | 1.1 | 1.6 | 3.2 |
| 중동 및 북아프리카 | -1.7 | -0.3 | 2.4 | 3.6 | 5.2 | 7.1 | 5.0 |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65.1 | 3.5 | 3.8 | 4.2 | 2.2 | 15.1 | 1.2 |

주 1) GDP는 해당 기간에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 가치의 총합임.

2) 환율은 연간 명목 변화율(미국 달러당 해당 국가 통화)이며, 음(-)의 변화율은 미국 달러의 절하를 의미함.

3) '신흥시장'에 포함된 국가는 대륙별 분류에도 중복으로 포함됨.

4)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동남아시아에 포함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임.

5) 남미의 기타 국가에 포함되는 국가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임.

자료: Kaufman et al.(2025), p.5. 를 저자가 번역·가공함.

3. 미국의 농식품 수출 전망

3.1. 품목별 수출 전망

옥수수과 사료의 수출은 증가하지만, 밀, 수수, 쌀 수출 감소로 2025년 미국의 곡물 및 사료 수출은 377억 달러로 전망된다. 옥수수 수출은 수량 증가와 단가 상승으로 인해 2024년 대비 상승한 138억 달러로 예측된다. 옥수수의 2025년 판매 및 선적은 견조한 반면, 2025년 1월 미국 옥수수 생산량의 하향 조정과 미국 내 수요 증가로 인해 옥수수 가격이 상승했다. 수수 수출은 對중국 수출의 물량 감소와 단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2024년

11월 전망치보다 감소한 10억 달러로 예상된다. 밀 수출액은 밀 단가는 변동이 없으나 밀 수출 수량이 감소하여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의 쌀 수출은 對라틴 아메리카 시장 판매가 악화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한 21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유지종자 및 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한 324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이는 주로 대두 수출 감소와 단가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대두유의 경쟁력 개선으로 인해 수출량과 단가가 증가하여 2025년 수출액은 8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 가축·가금류 제품 및 유제품 수출은 397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로 쇠고기 및 유제품 수출 증가 전망에 기인한다. 쇠고기와 유제품 수출액 증가는 각각 물량 증가 및 단가 상승과 미국산 치즈 및 버터 수출의 가격 경쟁력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특히 북미, 남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미국산 치즈 및 버터에 대한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돼지고기 수출도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의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증가가 전망된다. 가금류 제품의 수출액은 육계 수출액의 소폭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이 칠면조 고기, 기타 가금육, 계란 및 계란 제품의 수출 감소분과 상쇄되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미국의 원예산물 수출액은 신선 채소·과일과 가공 채소·과일이 캐나다와 멕시코로의 안정적인 수출을 기록함에 따라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2025년 에탄올 수출액 전망은 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에탄올 수출량은 18억 5천만 갤런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년 대비 옥수수과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 낮아진 수출 단가가 수출량 증가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2025년 에탄올 수출량은 캐나다, EU, 인도, 영국, 콜롬비아 대상으로 약간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산 에탄올이 국내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캐나다 연방 및 지방정부의 에탄올 혼합률 상향 정책은 미국산 에탄올의 수출에 호조로 작용할 것이다. 브라질 제품 대비 미국산 제품의 유리한 가격 책정과 에탄올 혼합률 증가 정책으로 인해 영국 및 일부 EU 국가로도 미국산 에탄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도 국내산 에탄올이 연료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비연료 응용 분야에서 미국산 에탄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한다.

〈표 2〉 미국의 농식품 품목별 수출 전망(2024~2025년)

단위: 10억 달러

| 품목 | 2024 회계연도 | 2025 회계연도 전망 | |
|----------------------------|----------------|--------------|--------------|
| | | 2024년 11월 기준 | 2025년 2월 기준 |
| 곡물 및 사료 | 38.825 | 36.5 | 37.7 |
| 밀 | 5.852 | 5.9 | 5.8 |
| 쌀 | 2.426 | 2.3 | 2.1 |
| 옥수수 | 13.465 | 12.4 | 13.8 |
| 수수 | 1.644 | 1.2 | 1.0 |
| 사료 | 9.626 | 9.2 | 9.5 |
| 유지종자 및 가공품 | 36.036 | 33.5 | 32.4 |
| 대두 | 24.134 | 22.6 | 21.2 |
| 대두박 | 6.709 | 5.9 | 5.7 |
| 대두유 | 0.334 | 0.3 | 0.8 |
| 가축·가금류 제품 및 유제품 | 38.755 | 39.3 | 39.7 |
| 축산물 | 24.158 | 24.1 | 24.3 |
| - 쇠고기 | 9.173 | 8.8 | 9.1 |
| - 돼지고기 | 7.241 | 7.5 | 7.6 |
| - 소·돼지 가공육 | 2.169 | 2.2 | 2.2 |
| - 원피·가죽·모피 | 0.902 | 0.8 | 0.8 |
| 가금산물 | 6.578 | 6.8 | 6.8 |
| - 닭고기 | 4.183 | 4.3 | 4.4 |
| 유제품 | 8.020 | 8.4 | 8.5 |
| 담배 및 가공품 | 1.372 | 1.4 | 1.4 |
| 면화 | 5.138 | 4.3 | 4.1 |
| 종자 | 1.709 | 1.7 | 1.7 |
| 원예산물 | 40.916 | 41.7 | 41.7 |
| 신선 과일 및 채소 | 7.669 | 7.7 | 7.7 |
| 가공 과일 및 채소 | 8.206 | 8.4 | 8.4 |
| 건과류 | 9.505 | 9.9 | 9.9 |
| 설탕 및 열대 농산물(커피·코코아) | 7.507 | 7.5 | 7.5 |
| 에탄올 | 4.170 | 4.2 | 4.2 |
| 합계 | 174.428 | 170.0 | 170.5 |

주 1) 곡물 및 사료는 보리, 귀리, 호밀, 옥수수 글루텐 사료 및 박(meal), 곡류 가공 제품을 포함하며, 밀은 밀가루를 제외한 수치임.

2) 대두박은 단백질 박(protein meal)으로 만든 대두 가루를 포함함.

3) 쇠고기와 닭고기는 냉장, 냉동, 가공을 포함하며, 닭고기의 경우 연방에서 검역한 실적만 포함함.

4) 원예산물은 조제식료품, 와인, 에센셜 오일을 포함함.

5) 에탄올은 연료나 공업용 화학물질로 사용되는 비음용 에탄올을 의미함.

자료: Kaufman et al.(2025), p.8. 를 저자가 번역·가공함.

3.2. 지역별 수출 전망

주로 미국산 대두, 옥수수, 수수, 면화의 對중국 수출 감소로 2024년 11월 기준 233억 달러에서 13억 달러 감소한 220억 달러로 對중국 전체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3위 농식품 수출시장이다.

對중국 수출 감소의 배경에는 중국 내의 임금 상승 둔화와 주택 가격 하락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와 동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감소가 있다. 동물성 제품에 대한 낮아진 수요로 인해 중국의 수입 사료 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중국의 기록적인 옥수수 수확량으로 인해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와 수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라질 대두의 기록적인 수확량 증가는 미국의 對중국 대두 수출 감소의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對중국 및 對홍콩 수출 감소는 일본, 한국, 대만으로의 수출 증가로 일부 상쇄될 전망이다. 일본으로의 옥수수 수출 증가, 한국으로의 옥수수와 쇠고기 수출 증가, 대만으로의 쇠고기와 견과류 수출 증가에 따라 각 국가로의 수출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4년 11월 전망 대비 2025년 2월 전망 기준 미국산 농식품의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은 증가하는데 이는 베트남과 태국으로의 수출 증가가 필리핀 대상 수출 감소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견과류 선적량 증가와 면화에 대한 높은 수요로 3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으로의 미국산 대두박과 밀의 판매 부진에 따라 미국의 對필리핀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對멕시코 수출은 유제품, 밀, 육류 및 조제식료품의 수요 증가로 인해 302억 달러로 예측되며, 멕시코는 미국 농식품 수출의 가장 큰 시장으로 남을 것이다. 캐나다로의 수출은 예상보다 저조한 제빵류, 조제식료품, 옥수수, 사료 및 사료용 곡물 판매로 인해 284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남미로의 수출액은 콜롬비아와 페루로의 수출 증가에 따라 87억 달러로 상승할 전망이다. 對콜롬비아 수출은 옥수수, 대두박, 주정박(distiller's grains) 수요 상승으로 인해 4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와 서반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2025년 미국의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다. EU로의 수출은 증류주와 견과류 판매 호조로 인해 전기 대비 증가한 127억 달러로 예상된다. 터키

로의 수출은 대두, 주정박(distiller's grains), 면화의 판매 증가로 인해 16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며, 면화의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계약(수출 및 미결제 매출)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다. 이집트로의 수출은 이집트가 통화 위기에서 회복하고 미국산 대두를 다시 구매함에 따라 11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미국의 지역별 농식품 수출 전망(2024~2025년)

단위: 10억 달러

| 품목 | 2024 회계연도 | 2025 회계연도 전망 | |
|------------|---------------|--------------|-------------|
| | | 2024년 11월 기준 | 2025년 2월 기준 |
| 아시아 | 68.100 | 64.9 | 64.2 |
| 동아시아 | 51.030 | 48.1 | 47.0 |
| - 일본 | 11.851 | 11.6 | 11.8 |
| - 중국 | 25.745 | 23.3 | 22.0 |
| - 홍콩 | 1.487 | 1.7 | 1.3 |
| - 대만 | 3.670 | 3.5 | 3.6 |
| - 한국 | 8.249 | 8.0 | 8.3 |
| 동남아시아 | 13.024 | 12.8 | 13.0 |
| - 인도네시아 | 3.006 | 2.8 | 2.8 |
| - 필리핀 | 3.716 | 3.7 | 3.4 |
| - 말레이시아 | 0.930 | 0.9 | 0.9 |
| - 태국 | 1.187 | 1.1 | 1.3 |
| - 베트남 | 3.164 | 3.1 | 3.4 |
| 남아시아 | 4.046 | 4.0 | 4.2 |
| - 인도 | 2.212 | 2.3 | 2.3 |
| 서반구 | 79.434 | 78.7 | 78.9 |
| 북미 | 59.040 | 59.1 | 58.6 |
| - 캐나다 | 29.004 | 29.2 | 28.4 |
| - 멕시코 | 30.036 | 29.9 | 30.2 |
| 카리브제도 | 5.371 | 5.3 | 5.3 |
| - 도미니카 공화국 | 2.102 | 2.1 | 2.1 |
| 중미 | 6.365 | 6.0 | 6.3 |
| 남미 | 8.658 | 8.3 | 8.7 |
| - 브라질 | 0.873 | 0.8 | 0.8 |
| - 콜롬비아 | 4.226 | 4.1 | 4.4 |
| - 페루 | 0.744 | 0.7 | 0.8 |
| - 베네수엘라 | 0.808 | 0.7 | 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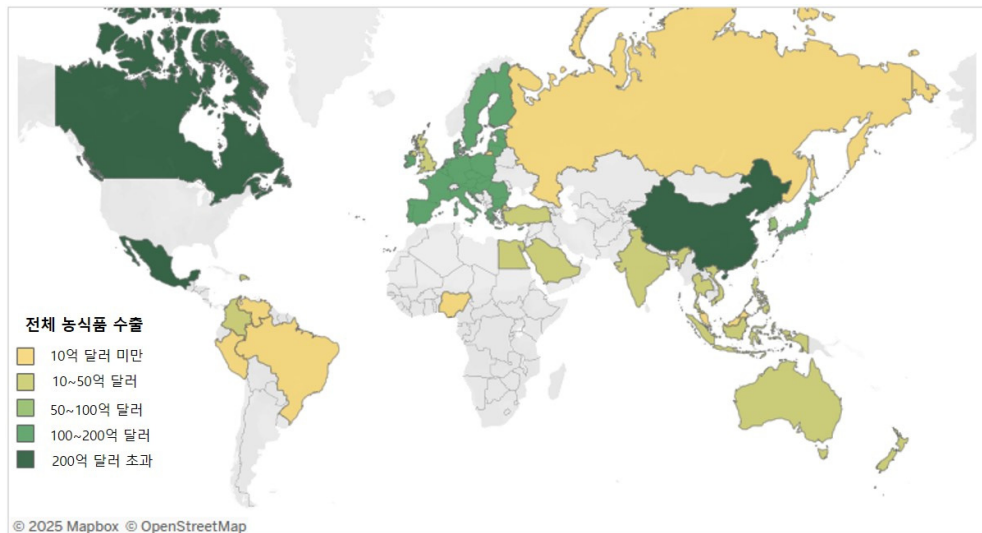
| 품목 | 2024 회계연도 | 2025 회계연도 전망 | |
|----------------|----------------|--------------|--------------|
| | | 2024년 11월 기준 | 2025년 2월 기준 |
| 유럽·유라시아 | 15.241 | 15.3 | 15.5 |
| 유럽연합 | 12.390 | 12.5 | 12.7 |
| 영국 | 2.117 | 2.2 | 2.2 |
| 구소련 국가(FSU-12) | 0.352 | 0.3 | 0.3 |
| - 러시아 | 0.107 | 0.1 | 0.1 |
| 중동 | 5.969 | 5.8 | 6.1 |
| 튀르키예 | 1.451 | 1.3 | 1.6 |
| 사우디아라비아 | 1.396 | 1.4 | 1.4 |
| 아프리카 | 3.489 | 3.3 | 3.7 |
| 북아프리카 | 2.006 | 1.9 | 2.2 |
| - 이집트 | 0.933 | 0.8 | 1.1 |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1.483 | 1.4 | 1.5 |
| - 나이지리아 | 0.219 | 0.1 | 0.2 |
| 오세아니아 | 2.195 | 2.1 | 2.1 |
| 합계 | 174.428 | 170.0 | 170.5 |

주 1) 전망은 주로 트렌드나 최근 평균 성장 분석에 기반함.

2) 중미는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를 포함하며, 구소련 국가(FSU-12)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Kaufman et al.(2025), p.11. 를 저자가 번역·가공함.

〈그림 1〉 미국의 지역별 농식품 수출 전망



자료: USDA ERS(<https://www.ers.usda.gov/topics/international-markets-us-trade/us-agricultural-trade/outlook-for-us-agricultural-trade>). 검색일: 2025. 3. 7.을 저자가 번역·가공함.

4. 미국의 농식품 수입 전망

4.1. 품목별 수입 전망

2025년 미국 농식품 수입은 2024년의 2,062억 달러보다 증가한 2,195억 달러로 예측되며, 주로 원예 제품, 설탕 및 열대 농산물(커피·코코아)의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2025년 미국의 원예산물 수입은 2024년보다 6% 증가한 1,076억 달러로 예측된다. 미국의 원예산물 수입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신선 과일 수입액은 주로 단가 상승에 의해 증가했지만, 2024년 악천후, 공급 중단, 정치적 불안정이 결합되어 중남미와 멕시코로부터 수입량이 감소했던 기저효과도 존재한다. 즉, 기상 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2025년 원예산물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수입량이 가장 많은 상품인 멕시코의 아보카도는 미국의 높은 수요와 멕시코의 개선된 재배 조건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공 과일 수입액은 단가의 상승과 수입 물량 증가로 인해 2025년 97억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공 과일의 수입액 증가는 주로 과일주스 수입 증가로 인한 것으로, 오렌지 주스 단가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됨에 따라 2024년 수입액 대비 2025년 전망치가 16% 증가했다.

원예산물의 두 번째로 큰 분류인 신선 채소는 멕시코의 작황 개선으로 인해 2025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견과류는 베트남산 캐슈넛 수입량 회복에 따라 2024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맥주 수입액은 수입량 감소로 인해 2024년 11월 기준 전망치에서 3억 달러 감소하여 76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 다양한 즉석 음료 및 무알코올 음료와 같은 대체품 증가 등이 맥주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

미국의 2025년 가축·가금·유제품 수입액은 쇠고기, 가금류 및 유제품 수입 증가에 따라 305억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의 미국 국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요거트, 카제인(casein),³⁾ 치즈, 버터와 같은 고가 유제품은 강한 미

3) 우유 또는 탈지유의 단백질을 산으로 처리하여 얻어진 것(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https://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4_03.jsp?idx=456), 검색일: 2025. 3. 11.을 참고함).

국 국내 수요와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해 수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소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신세계 나사벌레(New World Screwworm)의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11월에 처음 시행된 멕시코산 소에 대한 검역 프로토콜의 결과로 판단된다.

설탕 및 열대 농산물의 2025년 수입액은 2024년 대비 증가한 327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주로 코코아 및 커피 제품의 수입액 증가로 인한 것이다. 코코아 제품 수입액은 2024년 대비 19% 상승한 85억 달러로 전망되며, 불확실한 기상 조건, 질병 및 서아프리카의 기타 요인으로 인해 재고가 부족한 코코아의 가격이 높아져 지속적인 공급 위험이 존재한다. 커피 생두의 공급 부족과 브라질의 기상 우려로 최근 몇 달 동안 단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유지하는 커피 수요로 인해 커피 수입액은 2024년 대비 17% 증가한 105억 달러로 예상된다.

2025년 미국의 곡물 및 사료 수입액은 2024년 대비 7% 상승한 242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이는 반려동물 사료 및 동물 사료의 단가 상승이 원인으로 보인다. 미국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곡물 제품을 수입하는데, 그다음으로는 멕시코, EU, 아시아, 남미의 국가들로부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미국의 농식품 품목별 수입 전망(2024~2025년)

단위: 10억 달러

| 품목 | 2024 회계연도 | 2025 회계연도 전망 | |
|------------------|---------------|--------------|-------------|
| | | 2024년 11월 기준 | 2025년 2월 기준 |
| 가축·가금·유제품 | 28.960 | 30.3 | 30.5 |
| 가축 및 축산물 | 22.326 | 23.3 | 23.4 |
| - 소 | 2.987 | 3.0 | 2.3 |
| - 돼지 | 0.535 | 0.6 | 0.6 |
| - 쇠고기 | 10.264 | 11.3 | 12.0 |
| - 돼지고기 | 2.199 | 2.3 | 2.2 |
| - 닭고기 | 1.195 | 1.3 | 1.4 |
| 유제품 | 5.439 | 5.7 | 5.8 |
| - 치즈 | 1.891 | 2.0 | 2.1 |
| 곡물 및 사료 | 22.626 | 23.9 | 24.2 |
| 곡물 제품 | 16.474 | 17.8 | 17.8 |

| 품목 | 2024 회계연도 | 2025 회계연도 전망 | |
|-------------------|----------------|--------------|--------------|
| | | 2024년 11월 기준 | 2025년 2월 기준 |
| 유지종자 및 가공품 | 19.925 | 20.6 | 20.5 |
| 식물성 식용유 | 14.882 | 15.8 | 15.7 |
| 원예산물 | 101.393 | 105.6 | 107.6 |
| 신선 과일 | 19.437 | 20.1 | 20.9 |
| 가공 과일 | 8.721 | 9.1 | 9.7 |
| - 과일 주스 | 3.634 | 3.8 | 4.2 |
| 견과류 | 2.590 | 2.7 | 2.7 |
| 신선 채소 | 12.916 | 13.5 | 13.5 |
| 가공 채소 | 8.788 | 9.1 | 9.6 |
| 와인 | 7.097 | 7.2 | 7.4 |
| 몰트 비어 | 7.539 | 7.9 | 7.6 |
| 증류주 | 11.116 | 11.8 | 11.8 |
| 에센셜 오일 | 5.482 | 5.7 | 5.7 |
| 절화 및 묘목 | 3.515 | 3.7 | 3.7 |
| 설탕·커피·코코아 | 29.325 | 31.0 | 32.7 |
| 감미료 및 가공품 | 7.545 | 7.8 | 7.9 |
| - 과자류 | 3.169 | 3.3 | 3.3 |
| 코코아 및 가공품 | 7.142 | 7.6 | 8.5 |
| 커피 및 가공품 | 9.001 | 9.8 | 10.5 |
| 기타 | 3.978 | 4.1 | 4.0 |
| 합계 | 206.207 | 215.5 | 219.5 |

주: 기타는 주로 가공되지 않은 담배, 종자, 면화, 에탄올의 수입액임.
 자료: Kaufman et al.(2025), p.14. 를 저자가 번역·가공함.

4.2. 지역별 수입 전망

2025년 미국의 서반구 지역으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은 2024년보다 6% 증가한 1,292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이는 원예산물, 코코아와 같은 열대 농산물, 축산물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미국의 2025년 멕시코산 수입은 2024년 11월에 처음 시행된 신세계 나사벌레(New World Screwworm) 예방 조치로 인한 생체 동물 수입 감소와 2025년 2월 승인을 받은 검사 시설을 통해서만 재개된 수입의 영향으로 인해 2024년 11월 기준 전망치에서 8억 달러

감소한 491억 달러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 멕시코로부터의 맥주와 곡물 기반 식품(쿠키, 칩 등) 수입은 2024년 대비 3% 증가하며, 가공식품 및 음료의 수입에서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캐나다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은 2024년 대비 6% 증가한 429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온실에서 재배한 채소와 냉동 감자를 포함한 채소 수입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산 가공식품, 곡물 제품, 설탕 및 열대 농산물의 수입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공된 코코아 제품과 과자류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이 주로 커피를 수입하는 지역으로부터의 2025년 수입액은 커피의 높은 단가로 인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카리브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코코아, 커피, 설탕 제품의 단가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 대비 약 5%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남미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여 2025년 266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며, 특히 커피 단가의 지속적 강세로 인해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칠레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33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미국의 주요 수입 품목인 신선 과일의 수입 정체, 가금류, 식물성 식용유(올리브 및 가공유), 와인, 채소 수입 감소의 영향이다. 반면, 아르헨티나산 수입액은 2024년 대비 약 12% 증가한 2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과일, 채소, 식물성 식용유(올리브오일), 설탕, 쇠고기 수입이 증가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콜롬비아로부터의 수입액은 콜롬비아 커피 생산량 증가 및 커피 가격 상승, 절화와 신선 과일 수입 증가로 인해 45억 달러로 전망된다. 남미 지역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반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데, 그중 에콰도르산 코코아, 설탕 및 커피의 가치 증가가 미국의 남미 지역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증가의 주된 요인이다.

2025년 유럽 및 유라시아로부터의 수입은 427억 달러로 전망되며, 주로 EU로부터의 수입 비율이 높다. 미국의 2025년 EU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373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이는 가공식품, 채소 가공품(토마토소스), 가공 곡물 제품, 코코아 제품, 치즈(이탈리아 및 프랑스산)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다.

미국의 2025년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2024년보다 10% 증가하여 309억 달러로 예상된다. 동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가공식품 및 재료, 과일 주스의 수입 증가로 인해 2025년 수입액 전망치는 61억 달러이다.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부터의 2025

년 수입 전망치는 37억 달러로, 이는 한국산 가공유와 가공식품 및 곡물 제품(파스타) 수입 증가와 일본산 가공식품 및 음료 수입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예측된다.

2025년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수입 전망치는 2024년 대비 12% 증가한 169억 달러이며, 이러한 수입 증가는 동남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최대 수입 상대국인 인도네시아의 열대 농산물, 특히 코코아와 가공 과일 및 주스의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인도네시아산 팜유 수입량은 인도네시아의 바이오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산 가공유(폐식용유), 코코아 및 지방산 수입 증가로 인해 2025년 수입액은 2024년 대비 16% 증가한 12억 달러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산 팜유 수입은 기상 조건으로 인한 생산 제한 우려로 2025년까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의 경우 반려동물 사료, 과일 주스, 설탕, 코코아 및 자스민 쌀(Jasmine rice)의 수입 증가로, 베트남의 경우 캐슈넛 생산의 회복으로 인해 2025년 수입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기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싱가포르의 음료 제조 수입 증가와 필리핀의 열대 농산물 수입 증가로 2025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남아시아산과 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경제인 인도산 수입은 2024년 대비 증가한 42억 달러와 37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향신료와 식품 재료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와 미국 달러화의 인도 루피 대비 강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2025년 오세아니아로부터의 미국의 수입액 전망치는 2024년 대비 9% 증가한 96억 달러인데, 주로 호주의 육류 생산 증가와 미국 내에서의 육류 가격 증가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의 경우 미국의 2025년 수입액 전망치는 코코아와 커피의 단가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증가한 42억 달러이다. 서아프리카의 기상 우려로 인해 코코아 수입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주로 서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도 주로 코트디부아르의 커피와 코코아 수입액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미국의 지역별 농식품 수입 전망(2024~2025년)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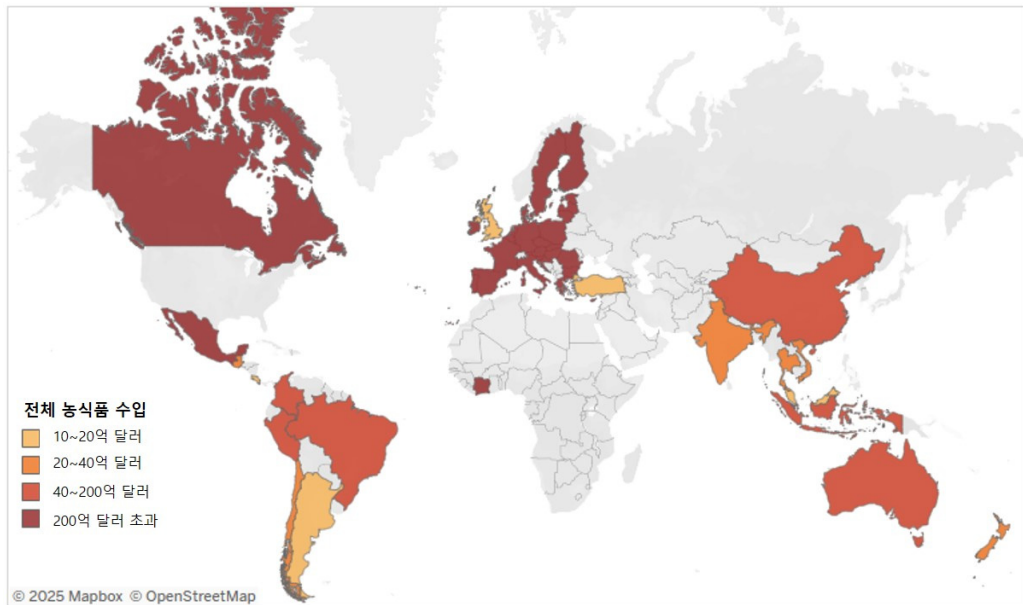
| 품목 | 2024 회계연도 | 2025 회계연도 전망 | |
|----------------|----------------|--------------|--------------|
| | | 2024년 11월 기준 | 2025년 2월 기준 |
| 서반구 | 122.127 | 127.8 | 129.2 |
| 캐나다 | 40.578 | 42.5 | 42.9 |
| 멕시코 | 47.872 | 49.9 | 49.1 |
| 중미 | 7.886 | 8.4 | 8.4 |
| - 코스타리카 | 2.089 | 2.2 | 2.2 |
| - 과테말라 | 2.861 | 3.0 | 3.0 |
| - 기타 국가 | 2.936 | 3.2 | 3.2 |
| 카리브제도 | 2.103 | 2.2 | 2.2 |
| 남미 | 23.688 | 24.8 | 26.6 |
| - 아르헨티나 | 1.793 | 1.8 | 2.0 |
| - 브라질 | 7.275 | 7.7 | 8.3 |
| - 칠레 | 3.382 | 3.5 | 3.3 |
| - 콜롬비아 | 4.4045 | 4.3 | 4.5 |
| - 페루 | 4.087 | 4.3 | 4.8 |
| - 기타 국가 | 3.106 | 3.2 | 3.7 |
| 유럽·유라시아 | 40.535 | 42.0 | 42.7 |
| 유럽연합-27 | 35.251 | 36.6 | 37.3 |
| 영국 | 2.668 | 2.8 | 2.8 |
| 기타 국가 | 2.617 | 2.6 | 2.6 |
| 아시아 | 28.046 | 29.7 | 30.9 |
| 동아시아 | 9.077 | 9.3 | 9.8 |
| - 중국 | 5.647 | 5.8 | 6.1 |
| - 기타 국가 | 3.430 | 3.5 | 3.7 |
| 동남아시아 | 15.121 | 16.4 | 16.9 |
| - 인도네시아 | 3.921 | 4.0 | 4.1 |
| - 말레이시아 | 1.032 | 1.3 | 1.2 |
| - 태국 | 3.429 | 3.6 | 3.7 |
| - 베트남 | 2.823 | 3.0 | 3.3 |
| - 기타 국가 | 3.916 | 4.5 | 4.6 |
| 남아시아 | 3.847 | 4.0 | 4.2 |
| - 인도 | 3.372 | 3.5 | 3.7 |

| 품목 | 2024 회계연도 | 2025 회계연도 전망 | |
|--------------|----------------|--------------|--------------|
| | | 2024년 11월 기준 | 2025년 2월 기준 |
| 오세아니아 | 8.827 | 9.0 | 9.6 |
| 호주 | 5.030 | 5.3 | 5.9 |
| 뉴질랜드 | 3.538 | 3.6 | 3.6 |
| 아프리카 | 3.975 | 4.1 | 4.2 |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2.810 | 3.0 | 3.1 |
| - 코트디부아르 | 0.752 | 0.8 | 0.9 |
| 중동 | 2.698 | 2.9 | 2.9 |
| 튀르키예 | 1.908 | 2.0 | 2.0 |
| 합계 | 206.207 | 215.5 | 219.5 |

주: 유럽·유라시아의 기타 국가는 12개의 구소련 국가, 스위스, 세르비아, 노르웨이, 북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코소보를 포함함.

자료: Kaufman et al.(2025), p.18. 를 저자가 번역·가공함.

〈그림 2〉 미국의 지역별 농식품 수입 전망



자료: USDA ERS(<https://www.ers.usda.gov/topics/international-markets-us-trade/us-agricultural-trade/outlook-for-us-agricultural-trade>). 검색일: 2025. 3. 7.을 저자가 번역·가공함.

5. 요약 및 시사점

USDA의 ‘미국 농업 무역 전망 2025(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 February 2025)’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2025년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성장이 강세를 보이며, 유럽 및 중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미국의 농업 수출과 수입 전망치는 각각 1,705억 달러와 2,195억 달러로 미국의 농업 무역수지는 490억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농업 수출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 및 브라질과의 대두 경쟁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경제 성장과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농업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로 원예산물, 설탕, 열대 농산물의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농업 무역수지는 2022년 19억 달러 흑자, 2023년 172억 달러 적자, 2024년 3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490억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의 농업 분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농업 분야 무역에서는 미국이 對한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농업 분야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김상효 외, 2024). 또한, 2025년에는 국제 무역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고금리, 해상 운송 차질과 증가하는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등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된다(OECD, 2024). 세계 경제와 기상 조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업 교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농업의 품목 및 지역별 교역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상효·김수린·한정훈·임준혁. 2024.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Kaufman, J., Jiang, H., Williams, A., & Kenner, B. 2025.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 February 2025*.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s Research Services and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OECD. 2024. *Risks and Resilience in Global Trade: Key Trends in 2023-2024*. OECD Publishing, Paris.

■ 참고사이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https://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4_03.jsp?id=456). 검색일: 2025. 3. 11.
- USDA(<https://www.usda.gov/about-usda/general-information/staff-offices/office-chief-economist/commodity-markets/wasde-report>). 검색일: 2025. 3. 7.
- USDA ERS(<https://www.ers.usda.gov/topics/international-markets-us-trade/us-agricultural-trade/outlook-for-us-agricultural-trade>). 검색일: 2025. 3. 7.